韓　国　語

（解答番号 1 ～ 50 ）

第１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32）

A　次の問い（**問１・問２**）において，下線部の初声（音節のはじめの子音，例えば산では ㅅ）の発音が他と**異なる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1

① 이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이다.
② 빨리 정상까지 올라갑시다.
③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④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났다.

問 2　2

① 강가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② 당시 수학 선생님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셨다.
③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④ 서울은 경제 발전에 의해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B　次の問い(問 1～3)の文において，下線部のハングル表記が**正しくな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3

① 부주의로 손을 닫쳤다.
② 의자에 옷을 걸쳐 놓았다.
③ 교육을 위하여 인생을 바쳤다.
④ 책을 펼쳐 놓으세요.

問 2　4

①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보고 시를 베껴 쓰고 있다.
② 밤새 쌓인 눈 때문에 길이 헷갈렸다.
③ 고양이가 개에게 쫓껴서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④ 무리한 요구를 했나 싶어 마음에 좀 거리끼는 모양이다.

問 3　5

① 그 당시 일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②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③ 싫으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돼.
④ 성공하려면 꾸준이 노력해야 해요.

韓国語

C　次の問い(問1～3)において，a～cは韓国語の単語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下線部をハングルで表記した場合(例：長　장)の異同について正しく述べた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なお，(　)内は日本の常用漢字の字体である。

問1　6

a　最低　　b　豫定(予定)　　c　庭園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2　7

a　腹痛　　b　傳統(伝統)　　c　同窓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3　8

a　交流　　b　向上　　c　光景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下 書 き 用 紙）

韓国語の試験問題は次に続く。

第2問　次の問い(A～F)に答えよ。(配点　80)

A　次の問い(**問1**・**問2**)の下線部の単語について，辞書の見出し語の形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9

① 무르다　② 물으다　③ 묻다　④ 물다

問2　그분은 직장에서 성가신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10

① 성갈다　② 성가실다　③ 성가시다　④ 성가다

B　次の問い(**問 1**・**問 2**)において，**ア**～**ウ**のように単語の形を変えたとき，その正誤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⑧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11

ア　쬐다 → 쬐서　　イ　캐다 → 캐서
ウ　베다 → 베서

① ア 正　イ 正　ウ 正　　② ア 正　イ 正　ウ 誤
③ ア 正　イ 誤　ウ 正　　④ ア 正　イ 誤　ウ 誤
⑤ ア 誤　イ 正　ウ 正　　⑥ ア 誤　イ 正　ウ 誤
⑦ ア 誤　イ 誤　ウ 正　　⑧ ア 誤　イ 誤　ウ 誤

問 2　12

ア　치르다 → 칠러요　　イ　디디다 → 디뎌요
ウ　믿다 → 밀어요

① ア 正　イ 正　ウ 正　　② ア 正　イ 正　ウ 誤
③ ア 正　イ 誤　ウ 正　　④ ア 正　イ 誤　ウ 誤
⑤ ア 誤　イ 正　ウ 正　　⑥ ア 誤　イ 正　ウ 誤
⑦ ア 誤　イ 誤　ウ 正　　⑧ ア 誤　イ 誤　ウ 誤

韓国語

C　次の問い(問 1 ～ 6)の [13] ～ [18]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니 일이 [13] 봐요.

① 바쁜지　② 바쁜가　③ 바쁘냐　④ 바빠

問 2　문을 잠그지 [14] 열어 두십시오.

① 말고　② 않고　③ 아니고　④ 못하고

問 3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15] 놀고 집에 들어가자.

① 아예　② 그만　③ 미리　④ 슬슬

問 4　도서관에서 전시회가 있어서 책도 빌릴 [16] 구경하러 갔다.

① 김　② 참　③ 셈　④ 겸

問 5　너무 긴장해서 입 안이 [17] 말라 버렸어요.

① 꿀꺽꿀꺽　② 모락모락　③ 바싹바싹　④ 번들번들

問 6　설을 [18] 고향에 다녀와야겠어요.

① 쇠러　② 받으러　③ 뵈러　④ 찾으러

D 次の問い(問 1 ～ 4)において，下線部の語句と入れ替えたとき，文意が最も近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여기서 전철역까지는 한 오분 정도 걸립니다. 19

① 고작　② 약　③ 아마　④ 즉

問 2 다리를 펴고 편히 앉으세요. 20

① 열고　② 늘이고　③ 뻗고　④ 넓히고

問 3 이 이야기는 꼭 신문에 게재해 주세요. 21

① 이어　② 태워　③ 얹어　④ 실어

問 4 밤 늦게 떠나느니 차라리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게 낫다. 22

① 떠날 바에야　② 떠나는 터에　③ 떠나는 한편　④ 떠날 뿐더러

韓国語

E　次の問い(問 1～4)の下線部の日本語に相当する韓国語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あの先生をおいて，この仕事をしてくれる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
23 이 일을 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① 그 선생님을 놓고서　② 그 선생님 아니면
③ 그 선생님뿐　④ 그 선생님만

問 2　もっと早く勉強を始めていればよかったです。
더 일찍 공부를 24 .

① 시작하기 일쑤예요　②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③ 시작하는 법이에요　④ 시작할걸 그랬어요

問 3　試験日まで何日もないから，一生懸命勉強しよう。
시험 날까지 25 열심히 공부하자.

① 며칠이나 안 됐으니까　② 며칠이 아니니까
③ 며칠 안 남았으니까　④ 며칠도 없으니까

問 4　飛行機の窓から見えた白頭山の美しさといったらなかった。
비행기 창을 통해서 본 26 .

① 백두산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② 백두산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못했다
③ 백두산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④ 백두산의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었다

F　次の問い(**問 1・問 2**)において，その説明に相当す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어머니의 언니. 27

① 큰어머니　② 이모　③ 고모　④ 형수

問 2　같은 상황이 오래 계속되어 싫증이 나다. 28

① 쓸쓸하다　② 한심하다　③ 얌전하다　④ 지루하다

第３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40)

A　次の問い(問１～６)の［ 29 ］～［ 34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 1　손님 : 저기요. 어제 여기 있던 책 어디 갔어요?
점원 : ［ 29 ］
손님 : 정말이요? 어제 샀어야 했는데…….

① 그 책은 저기에 있어요.
② 그 책은 다 나갔는데요.
③ 저 책은 팔렸거든요.
④ 저 책은 다른 데 옮겼어요.

問 2　A : 그 만년필 멋있네.
B : ［ 30 ］
A : 그렇게 안 보이는데.

① 얼마 안 주고 샀어.
② 첫눈에 반해 버렸지.
③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④ 겉으로 보기는 좋지.

問 3　희진 : 미나야! 은영이 오늘 동아리 방에 오니?
미나 : ［ 31 ］
희진 : 그러면 만날 수 있겠네.

① 오늘은 안 온다고 그랬어.
② 나는 잘 모르겠는데.
③ 오늘 거기서 모임 있댔어.
④ 거기로 올 줄 알았어.

問 4 A : 연주회 연습 말인데요. 좀처럼…….

B : [32]

A : 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① 호흡도 잘 맞고 아주 좋던데.
② 무슨 연주회가 있는데?
③ 역시 연습한 보람이 있지?
④ 왜? 손발이 안 맞나 보구나.

問 5 A : 누가 화장실 불 켜 놓았니?

B : [33]

A : 앞으로는 그때그때 꼭 끄라 그래라.

① 지금 작은언니가 안에 있잖아요.
② 제가 쓰긴 했는데 깜빡하고 안 껐네요.
③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구가 나간 것 같아요.
④ 오빠가 아까 갔다 오는 것 같던데요.

問 6 A :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방학이네. 어디 같이 놀러 안 갈래?

B : [34]

A : 그래? 같이 놀면 재미있을 텐데.

① 사람이 많을수록 재미있으니까 희철이도 부르자.
② 작년에 등산을 갔으니까 올해는 낚시를 갈까?
③ 난 더위에 약하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쉴래.
④ 우리 동생도 좋아할 테니까 데리고 갈까?

韓国語

B 次の会話文を読み，下の問い(**問 1 ・ 問 2**)に答えよ。

사키 : 혜연 씨, 한국은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요?

혜연 :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있는 집이 많아요. [35]

사키 : 그래요? 저는 김치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 두는데 김치 냉장고는 어떤 점이 좋아요?

혜연 :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보다 김치가 잘 익은 상태로 오래가요.

사키 : 얘기만 들었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요.

혜연 : 부엌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리로 오세요.

사키 : 와! 이렇게 생겼군요. 남편하고 애들도 김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값이 만만치 않죠?

혜연 : 요즘 할인도 많이 해 주던데요. 김치뿐만 아니라 고기나 야채 같은 것도 더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어서 정말 쓸모가 있더라고요.

사키 : 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네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다른 음식에 냄새가 배는 것도 좀 그렇고…….

혜연 : 사셔도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사키 : 그럴까요?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겠어요.

問 1 [35]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① 저도 큰맘 먹고 하나 마련했지요.
② 저도 이번 달에 장만하려고요.
③ 전에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④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選べ。 [36]

① 사키는 김치 냉장고를 살 엄두가 안 난다.
② 사키는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③ 김치 냉장고는 값이 비싸지만 웬만해서는 깎아 주지 않는다.
④ 사키는 김치 냉장고를 이날 처음 보는 것은 아니다.
⑤ 혜연은 김치 냉장고를 여러모로 쓸 수 있어서 만족한다.

韓国語

C　次の会話文と次ページの地図に基づいて，下の問い(**問１・問２**)に答えよ。

히로시 : 준호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서점에 가려고 하거든요. 같이 안 갈래요?

준　호 : 서점이요? 네, 좋아요. 근데, 어느 서점에 갈 건데요?

히로시 : 우선 A서점에 가 보고 없으면 C서점에 가려고요.

준　호 : 그래요? 지하철 J 역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A서점 말이죠?

히로시 : 네, 그래요.

준　호 : A서점에 갈 거면 B서점에도 가요. 거기도 J 역에서 가깝잖아요.

히로시 : 그러죠. 그런데 우리 책 사고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준　호 :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히로시 : 어디서 뭘 먹을까요?

준　호 : 좀 걸어가야 하지만 D서점 맞은편에 있는 식당이 불고기가 맛있는데, 거기 어때요?

히로시 : 글쎄요. 불고기는 어제 먹었는데…….

준　호 : 그러면 A서점하고 C서점 중간쯤에 비빔밥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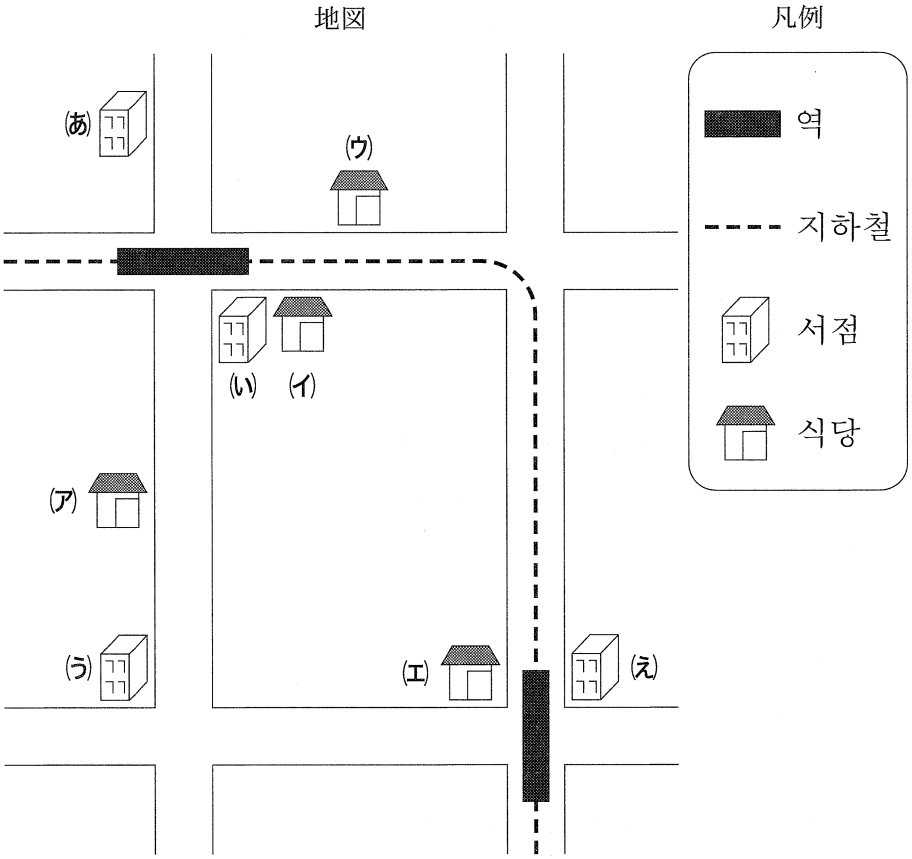
히로시 : 그런 집이 있어요? 네, 거기로 가죠.

問 1　A書店は地図上のどこか。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7

① (あ)　② (い)　③ (う)　④ (え)

問 2　二人が食事することにした食堂は地図上のどこか。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8

① (ア)　② (イ)　③ (ウ)　④ (エ)



韓国語

第４問 次の文章を読み，下の問い(問１～５)に答えよ。(配点　24)

늘 축구만 좋아하던 나였는데, 내가 요즘 이상해졌다.

그날은 하늘이 파란 8월의 여름날 오후였다. 나는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친구와 같이 놀고 있었다. 오전의 축구 연습이 끝나면 거의 날마다 바닷가로 달려가 오후 내내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것이 방학 중의 중요한 일과였다. 그런데 그날 그애를 처음 만났다.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배구공을 가지고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내가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우리 근처에서 놀고 있던 한 여자애를 맞히고 말았다. "아얏!" 하는 짧은 비명이 들렸지만 나는 들은 (ア)도 하지 않고 공만 가지고 와서 계속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무언가가 날아와 내 등을 때렸다.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얼굴이 눈꽃처럼 하얀 내 또래의 여자애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신발 한 (イ) 들려 있었다.

"뭐야? 네가 이걸 던졌어?" 화가 난 나는 내 옆에 떨어져 있는 신발을 집어 들고 그애에게 다가가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애는 갑자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고,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벌써 도망가 버린 친구들을 따라 도망가고 싶어졌다.

그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당연히 그 아주머니에게 야단을 맞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기분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는 그애를 또 만날까 두렵고 창피해서 바닷가에 갈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 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9월의 첫날, 옆 반에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난 너무 놀라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애가 바로 하얀 얼굴의 그애였기 때문이었다.

그애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니 솔직히 잊어버렸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난 첫눈에 그날의 그 사건과 그애에 관한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내가 했던 ㊵잘못도, 그 아주머니한테 혼났던 것도, 또 그 일에 대해 반성을 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㊶아는 척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다음 날부터 난 옆 반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그애를 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칠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려 딴청을 부리게** 되었다. 아직 친구가 없을 그애가 쉬는 시간이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상해졌다. 축구를 하다가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그애가 눈에 띄면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고, 거울을 보거나 세수를 자주 하는 습관도 생겼다. 그런 나를 보고 친구들은 낄낄거렸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도 웃을 수밖에 없는 나를 느끼면서 ㊷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무 그늘 밑의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애를 본 나는 뭔가에 이끌린 (ウ) 나도 모르게 그애 곁으로 다가가고 말았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저기 말이야, 그날은 미안했다." 그애는 나를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올려다 보았다. 나를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애의 얼굴은 너무너무 예뻤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괜찮아." 그애는 한 마디만 하고 다시 자기가 보고 있던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조금은 기뻤고, 조금은 창피했고, 조금은 두근거렸다. "난 유정호라고 해. 넌?" "알아. 너 유명하더라. 난 지연이야. 박지연."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애는 내게 대답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난 그애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축구? 축구는 아주 가끔 하게 되었다. 그 대신 그애와 자주 걷게 되었다. 정말 난 이상해졌다.

*기웃거리다 : のぞきこむ

**딴청을 부리다 : 知らんぷりをする

韓国語

問 1　本文の（ ア ）～（ ウ ）に入れる語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次の①～⑧のうちから一つ選べ。 39

① （ ア ） 체　（ イ ） 짝이　（ ウ ） 처럼
② （ ア ） 체　（ イ ） 짝이　（ ウ ） 듯
③ （ ア ） 채　（ イ ） 켤레가　（ ウ ） 처럼
④ （ ア ） 채　（ イ ） 켤레가　（ ウ ） 듯
⑤ （ ア ） 채　（ イ ） 짝이　（ ウ ） 처럼
⑥ （ ア ） 채　（ イ ） 짝이　（ ウ ） 듯
⑦ （ ア ） 체　（ イ ） 켤레가　（ ウ ） 처럼
⑧ （ ア ） 체　（ イ ） 켤레가　（ ウ ） 듯

問 2　下線部㊵が意味す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0

①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한 것.
② 내 공에 맞아 아파하는 그애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
③ 다가오는 아주머니에게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간 것.
④ 내게 던진 신발을 그애에게 빨리 돌려주지 않은 것.

問 3　下線部㊶の理由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1

① 창피했던 그날 일이 떠올라서
② 무서운 그애 어머니를 다시 만날까 봐
③ 그애가 나를 몰라보니까
④ 그애에게 또 혼날 것이 두려워서

問 4　主人公が下線部㊷のように感じた理由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2

① 그애가 눈에 띄면 멍하게 쳐다보기만 하니까
② 거울을 보거나 세수를 자주 하는 습관이 생겨서
③ 친구가 놀려도 화를 낼 수 없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④ 축구를 하다가 교문 밖을 자꾸 보기 때문에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ただし，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 43 ・ 44

① 올 여름에는 방학 내내 오전에는 축구를 하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날마다 놀았다.
② 그애를 처음 만난 것은 개학하기 3주 전이었지만, 학교에서 그애를 보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③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후였다.
④ 그애가 먼저 이름을 알려 주어 그 후 우리는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⑤ 그애와 다시 만났을 때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실은 그애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⑥ 그애와 인사를 나눈 이후, 나는 축구는 하지 않고 그애와 같이 다니기만 해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第５問 次の文章を読み，下の問い(問１～５)に答えよ。(配点　24)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민의 의식도 변화하여 안전한 식생활, 자연과의 접촉, 환경 문제 등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야채 등을 직접 재배하여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도시 근교의 땅을 빌려 주말이나 휴일에 농사일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며, 땅을 마련하여도 비싼 농지 사용료와 근교까지의 혼잡한* 교통 사정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㊺관심이 있어도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을 포기하거나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도시농업'이다.

(　**ア**　) 농사 지을 밭은 개인 소유의 놀고 있는 땅을 빌려 이용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밭을 빌려 주는 경우가 늘어나 예전보다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 밭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자밭'을 만들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한두 가지의 야채 등을 작은 규모로 재배할 수도 있다. 상자밭은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 고무 대야 등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자신이 먹을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며 농사일을 즐길 수 있다.

(　**イ**　) 도시농업은 스스로 야채 등을 재배함으로써 농약의 지나친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다. 이와 같이 도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아 [48] 곳이 도시농업이기도 하다. 또 이를 통해 도시에서 하기 힘든 자연과 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도시 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흙에 섞어 비료로 만들어 도시농업에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밭일은 아이들에게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느 연구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밭일을 체험함으로써 관찰력과 신체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예전에 무관심했던 농작물과 풀 그리고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찰력도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도시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 ウ ）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은 농업과 관련된 지역 내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알려져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 어느 구의 경우, 그 구에서 도시농업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아주 싸게 파는 시장을 공동으로 열기도 하고,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의 학교 급식*** 재료로 쓰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등 그 지역 '먹을거리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エ ）그리고 농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도시농업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와 자연과의 접촉, 안전한 식생활과 같은 도시농업의 여러 혜택과 의의를 다시 한번 주목해 작은 규모나마 각자의 가정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혼잡하다：混雑している

**정서적：情緒的

***급식：給食

韓国語

問 1 下線部㊺の理由として**適当でない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5

① 농지 사용료가 싸지 않기 때문에
② 근교까지 나가는 데 길이 막히기 때문에
③ 농사 지을 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④ 농사일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問 2 次の文を本文中に入れるとすれば，（ ア ）～（ エ ）のうちどこがよいか。最も適当なものを，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6

도시농업은 말 그대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생각만 있다면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다.

① （ ア ） ② （ イ ） ③ （ ウ ） ④ （ エ ）

問 3 本文で説明されている「도시농업」の利点として**適当でない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7

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사용하므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
② 밭일을 통해 아이들의 관찰력과 신체 감각이 발달하는 것
③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
④ 농업의 이미지 개선과 농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問 4 [48]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① 달성한　② 나선　③ 다다른　④ 헤맨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ただし，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 [49] ・ [50]

① 도시농업이란 도시 안이나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다.

②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농업이 그 지역 식품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③ 상자밭을 이용하여 베란다 등에서 하는 도시농업이 땅을 빌려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④ 도시농업에서 사용할 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빌릴 수 있다.

⑤ 도시농업의 교육적 효과로 인해 부모들이 도시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⑥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그 지역의 급식 재료로 아주 싸게 제공되고 있다.